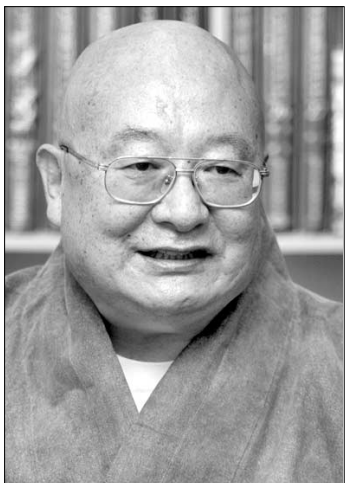


interview 임종 · 죽음서 3권 출간한 송암 스님

“죽음은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떠나는 자의 노래(불교 임종학)>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신의 질투인가> 등 임종과 죽음에 관한 책을 연이어 3권이나 출간한 송암 스님(울산 기도암 주지 · 사진).

“죽음은 또하나의 삶의 면목”

▲ ‘임종과 죽음’을 주제로 책을 출간하게 된 연유는? - 죽음에 대한 서적중에서 정말 한국적인 정서에 부응하는 서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실제 존재하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죽음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부족한 점과 의문 그리고 대학원에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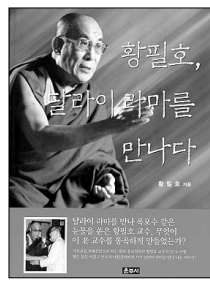
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삶속에 죽음이 존재하고, 죽음속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도식이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죽음을 두렵고 외로운 삶의 종착이라 생각하는 이론과 달리 죽음속에서 희망찬 내일을 알게 해준다.

▲ 죽음에 어떻게 보고 받아들여야 하나? - 죽음이야말로 누구나 당연히 가야하는 또 하나의 삶의 면목이며 동반자인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질시한다. 또 두려워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라는 아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욕망이 있다. 또 자기 것을 남에게도 주고 싶어서 죽어간다.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특히 죽음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과 죽음을 모두 소중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news.com

달라이 라마 앞에서 눈물 쏟은 老철학자

황필호, 달라이 라마를 만나다 황필호 지음 | 운주사 | 9000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2005년 12월 17일 집견실에서 종교철학자 황필호(강남대 신학부 · 사진) 교수와 장장 2시간 20분 동안 진행한 대담 내용의 일부이다. 달라이 라마: 한반도는 남북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더 강한 결의,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는 동시에 꾸준히

수의 인터넷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대담내용은 황 교수의 주 관심사인 종교철학, 한국의 현실, 환생, 페미니즘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는 대화를 8개의 주제등이다. 또 달라이 라마를 진경했을 때 감회와 지은이가 여러 약조건을 무릅쓰고 그를 찾게 된 동기를 자신의 삶과 관련시켜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생명공학에 대한 견해, 한반도의 제반 문제에 관한 달라이 라마의 생각을 옮겼다. 저자 황필호 교수는 서울대 문리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오슬라호마 대학 철학과에서 종교 철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덕성여대 교양학부 교수를 거쳐 동국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 현재 한국철학회 종교철학연구회와 사단법인 생활철학 연구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비교종교학 및 비교종교철학 시리즈>(전10권) <사회정치철학 시리즈>(전3권) 등이 있고 철학과 종교, 문화, 생활에 대한 여러 권의 에세이를 펴냈다.



김원우 기자

가깝고도 먼 반야심경 해설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수행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늘 독송하고 그 뜻을 음미하는 경전 가운데 하나가 <반야심경>이다. 다른 방대한 경전과 달리 겨우 260 자(字)에 불과한 짧은 <반야심경>은 10만 송에 이르는 대반야경의 핵심이며, 대승불교 교리의 근간인 공(空)사상을 설명한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스님도 모르는 반야심경 김종수 편저 우리출판사 | 9000원

그러나 이러한 반야심경이 올바르게 읽혀지고 또 배운 바대로 수행 활동에 적용되고 있는가의 물음에는 섣불리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카페 ‘수신선양(修身善養)’(cafe.daum.net/susinsunyang)을 개설하여 인터넷 포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종수씨가 펴낸 <스님도 모르는 반야심경>은 시중에 나와 있는 반야심경 관련 해설서 대부분이 왜곡된 관념만 만들고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 부처님의 근본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반야심경>이 ‘정각(正覺)을 얻은 이가 바른 수행의 길을 일러준 경’임을 알고, 스스로 반야심경이 요구하는 정법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반야심경의 각 구절마다 그 해설을 뒷받침할 논거로서 아함경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해설을 덧붙이지 않음으로써 저자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독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주고 있다.

김원우 기자

詩와 만난 금강경, 무한 상상력의 보고

有相有求俱是妄(유상유구구시망) 無形無見隨偏枯(무형무견편과) 堂堂密密下曾聞(당당밀밀하승간) 一道寒光燦太虛(일도한광산태허)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미망이요. 형상이 없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고루한 데에 떨어진다. 당당함과 비밀스러움이 어찌 간격이 있으며 한 줄의 찬 빛이 빛나는 허공이다.

야보 선사(송의시대, 문학평론가·시인) 교수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부처는 상(相)이 없어 욕심을 내서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상이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며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편협한 생각이다. 부처는 당당히 존재하면서도 비밀스럽게 깨달은 자에게만 보이므로 보이면서 보이지 않고, 상과 비상(非相)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다. 태초의 큰 허공은 하나일 뿐이다. 빛과 허공을 구별하는 자 따귀를 쳐라.’ 이 책 <천로금강경>은 송나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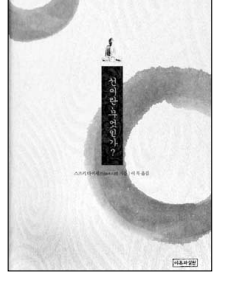
뛰어난 고승 야보도천(治父 道川, 생몰연대 확실치 않음, 인제스님 6세손) 선사 <금강경>을 시로 풀이한 것이다. 야보 선사는 시의 경지가 뛰어나 <금강경>의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불교의 이심전심의 비범도 경전을 맛깔스럽게 해준다. 따라서 <천로금강경>은 시라고 하는 감성의 세계를 통해서 불교적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천로금강경>은 <금강경>의 해설이기도 하지만 시로서의 독립적인 세계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야보선사가 당송의 문장을 꿰뚫고 있어서 시문을 인용하거나 차용하여 자신의 시로 환골탈태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은 야보 선사의 시 원문을 맨 위에 실어놓고, 그 아래 해설과 ‘주’가 달려있다. 또한 제2부에는 <금강경> 원본과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전기철 교수는 “고승 야보선사가 <금강경>을 시로써 해설한 것은 경전의 구절구절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로금강경 야보도천 전기철 주해 도서출판 다시 9000원

日 불교학자 스즈키의 禪강연집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1세기에 가까운 95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한 세계적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쓰.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선이란 무엇인가?>는 ‘경멸’과 ‘신비주의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선불교의 역사와 일화 그리고 선불교의 여러 개념들을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1927년부터 오사카의 산사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스즈키 다이세쓰의 강연은 ‘종교 경험으로서의 선’과 ‘불교에서 차지하는 선의 위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스즈키 다이세쓰 지음 이목역 이과로실천 | 1만5000원

제1회 ‘종교 경험으로서의 선’에서는 종교 경험과 불교 생활 등 선과 종교 경험의 관계를 역설한다. 그는 불교는 지적인 경향이 농후한 종교로 계-정-혜를 수득하지 못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제2회 ‘불교에서 차지하는 선의 위치’에서는 종교 경험의 여러 요소의 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고-집-멸-도라는 사제가 있어 괴로움이 있어야만 자신의 위치를 자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원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이 곧 부처 해안스님, 밀알, 1만2000원
· 꽃을 들어 보려라 금하광덕, 도피안사, 1만5000원
·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1만원
· 과학과 불교의 만남 황의현, 하늘북, 1만2000원
· 내면으로의 여행 샌드타카르스, 한국에디션사, 1만1800원
도서주문 (02)2004-8219

세계적인 프로젝트,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 D. 저 | 전현수 · 김상철 외 공역 | 신국판 | 304면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나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살피고, 모든 정신은 명상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 양쪽에서 20년간 경험한 결과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은 치료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게 하고, 치료자들과 명상적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호 협력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 달라이 라마 추천사 -
완전한 자기 구원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상, 하
존 카밧친 저 · 장현갑 외 공역 384/352면 | 신국판 | 빈양당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 자기 극복을 하기 위한 길잡이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조안 브리콜리 외 공역 · 장현갑 외 공역 272면 | 신국판 | 빈양당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 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산드라 엔데스 외 공역 · 조유경 외 공역 262면 | 국배번역원 | 빈양당
“학자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HAKJISA TEL (02)326-1500 |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사전 제대로 알아!”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박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